
2021년 1월 13일 평동교회 수요기도회 참고자료

제목 : 복음의 기본 2. 하나님 나라의 원리

본문 : 마가복음 4장 26~32절 / 마태복음 13:31~32 / 누가복음 13:18~19

(막 4:31)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막 4:32)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1. 이유를 알면 강해 집니다. 반면 까닭을 모르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야하는지 모르면 끝까지 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를 알면 할수 없는 일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원리를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원리를 알면 더 잘할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원리를 알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외우기 보다 원리를 깨달으면 어떤 것이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무턱대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내시기 전 먼저 그것을 움직이는 원리를 지으셨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풀기위해서 먼저 해야할 일은 관계된 원리를 아는 일입니다.
- #.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비밀과 그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 1)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함께 주님이 경고하시듯 하신 말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경 위에 둔 등불에 대한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감추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막 4:23~25/ 참고 마태 13:9~12)
 - 2) 은밀하게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십시오. 씨뿌리는 자와 네가지 밭에 대한 비유는 씨를 받아들이는 밭의 조건에 대하여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씨앗의 생명력에 대하여 강조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서만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 비유이기도 한데요. 이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겨자씨의 비유 -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핵심을 구별해야 합니다.

2. 겨자씨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본문은 공관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비유입니다. 그만큼 겨자씨의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내용과 원리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관심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렇지 않은 것에는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는 잘못을 계속하면 결국에는 가야 할 길을 오히려 갈 수 없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2021년도를 시작한 우리가 함께 바라고 기도할 방향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 #. 작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작은 시작을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할 출발을 부끄러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팡파레를 울리고 크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작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마굿간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 큰 것 역시 소중히 여길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 1)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비유는 특히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알지 못해도 땅에 뿌려진 씨앗은 자란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작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못한다고 분명히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성장의 신비를 우리가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니까 신비로운 것입니다. 은혜란 핑계의 논리를 깨뜨리는 힘이며 감추어진 신비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는 힘입니다.
 - 2) 겨자씨 한 알에 담겨있는 성장의 신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씨보다 작은 한 알이 모든 풀보다 자라고 커져서 결국에는 공중의 새들까지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고 하는 본문의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크면 컷지 결코 작지 않습니다.
 - 3)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오히려 내게 허락하신 것 비록 그것이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이라 할찌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품어 키우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심겨진 작은 씨앗으로부터 싹이 트기 시작할 것입니다.